

‘간호사 수급 불균형’ 국가적 과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여야 국회의원들 문제 심각성 인식 한목소리

숙련된 간호사 떠나면 환자 건강과 안전 위협받아 근무환경과 처우 획기적 개선책 시행해야 할 때

간호정책 선포식 통해 비전과 방향 제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사들 결연한 의지와 열정 느껴져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간호사 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만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국회와 정부에서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때다.”

“그동안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제시해 온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가 11월 14일 개최한 ‘2017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환자 옆에서 성심성의껏 돌보는 간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간호사들이 고된 근무와 낮은 처우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간호사 확보는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큰 틀에서 국가적 과제인 만큼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가 행복해야 국민도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축사에서 “우리가 의료체계가 선진화됐다고 하지만 간호사 처우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간호사 1인당 선진국보다 4~5배 많은 환자를 감당하고 있고, 평균 근무년수는 5.4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힘들게 면허를 받은 전문인력들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면서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환자들이 받기 때문에 간호정책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간호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간호정책 선포식이 열린 오늘의 활기차고 신명나는 분위기를 간호사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간호사들의 근무년수가 짧고 신규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근무환경과 처우가 안 좋기 때문이며, 이 두 가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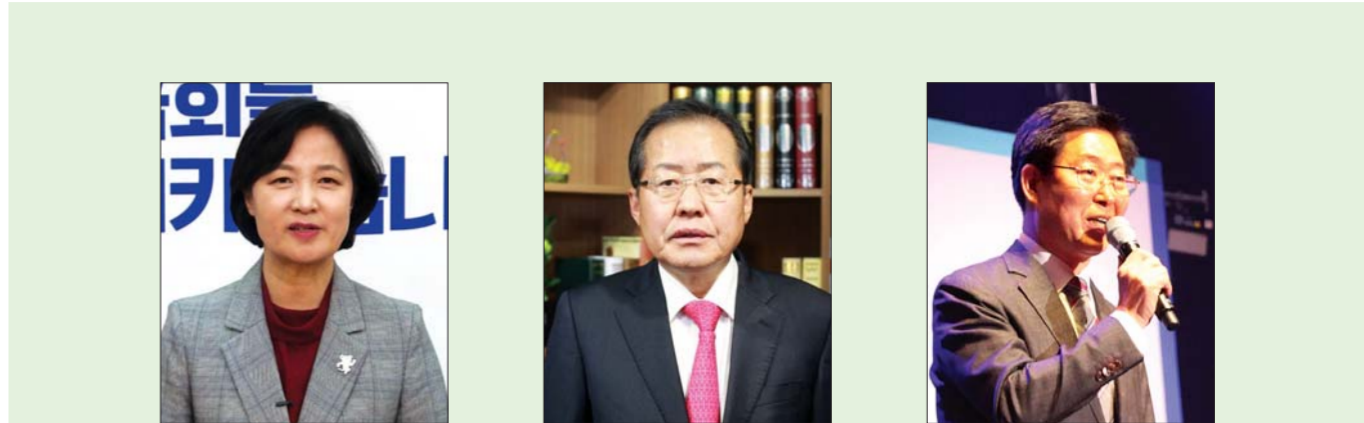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회재정위원회)은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시점이 됐으며,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간호사들이 사직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어젠다가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가는 길에서 국가 정책적 측면, 국민의 보건 측면에서 잘 생각해서 간호사의 처우문제 등을 진지하게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간호정책 선포식을 때마다 열기가 느껴지고, 간호사 여러분의 진심이 전해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간호협회가 내놓은 정책들이 실현된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의료와 보건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감을 얻어 실현된 것”이라면서 “간호사들이 역할과 직분에 맞는 당연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간호사들의 현재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오늘 간호정책 선포식이 보여주었고 있으며, 15대 중점과제를 잘 살피겠다”면서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간호사들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때”라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꼭



2017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왼쪽부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상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각줄 왼쪽부터 박영선 의원, 나경원 의원, 김상희 의원, 전혜숙 의원, 남인순 의원, 김광수 의원, 정춘숙 의원, 김승희 의원, 윤종필 의원, 장정숙 의원, 정갑윤 의원, 강길부 의원, 박순현 복지부 장관

관찰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간호사가 잘 되는 것이 바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일이며,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해마다 이렇게 비전을 선포해주니 국회에서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정리가 된다”면서 “간호사를 뽑으면 그만이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여야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고, 이번 만큼은 확실한 변화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은 배출되는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래 근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로조건 때문에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한 어젠다가 보건 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며, 간호사 처우와 근무는 간호사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면서 “15대 중점과제는 국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며, 오늘 여러분이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국민들을 위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가 잘 느껴진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성공하려면 간호사가 제대로 수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간호사 수급과 처우 개선 관련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정숙 국민의당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신규간호사에게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지급했다는 뉴스를 보고 기분이 좋았다”면서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신규간호사 열정페이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간호사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고 신분이 보장돼야 신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정담은 이미 나와 있으며, 그 답은 바로 처우 개선”이라면서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짚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15대 중점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간호사 여러분의 일터가 꿈의 직장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현 보건복지부 장관(박순현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적정 간호인력 확보는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사들은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고, 환자들은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안에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간근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유류간호사 재취업 중심에서 일선 간호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센터로 거듭나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간호정책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내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과 강길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박순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조찬형 대한약사회장, 박용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돈복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기획부회장,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안기중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간호사 확보 및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15대 중점과제’

10.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역할 확대로 신규 및 재직간호사 이직 방지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34%에 달하므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목표를 유류간호사 재취업뿐 아니라 신규간호사 취업 확대와 재직간호사 이직률 감소로 확대하여 활동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간호인력의 고용 및 처우에 관한 연구 등 의뢰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11. 병원조직문화 및 대국민 간호사 인식 개선

병원조직문화를 개선하여 간호사 ‘태움’ 및 ‘임상순번제’ 등 비인권적 행태를 개선하고 성추행, 폭행, 언어폭력 등으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을 비롯한 환자 및 보호자의 태도와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2. 간호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신규간호사 임상적응력 제고

무분별한 간호학과 정원 확대 및 신설은 교육환경의 질 저하와 교육실습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원 확대보다는 임상실습 기회 확대 및 임상실습 현장지도자 교육 등으로 간호실습교육의 질 및 신규간호사 임상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13.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통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배치

대한간호협회에서 2016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장학금 정책 수요조사」에서 많은 학생이 장학금 수혜 시 지방의료기관에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을 통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한된 기간 동안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14.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간호사 확보

현재 남간호사는 약 1만2600여명이며, 2017년 국가시험 남간호사 합격자 수는 213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11%를 차지했습니다. 남간호대학생 수는 1만8000여명으로 전체 간호대학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발의된 공중보건간호사 관련 법령 개정안 통과를 통해 의료취약지 및 공공병원 간호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15. 공공분야 간호직 채용 시 임상경력 의무화로 병원간호사 확보

간호직 공무원이나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채용 기준을 일정 기간 의료기관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거나 의료기관 종사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간호사들의 병원 취업을 유도해야 합니다.